



| CONTACT US |

영업팀 공용메일: sales.kr@maxlogis.com / 김민호 부장: mike.kim@maxlogis.com (82-10-2988-6309/070-5096-9367)
장명수 차장: simon.jang@maxlogis.com (82-10-4437-5175/ 070-5096-9387) / 정근재 대리: jg.jung@maxlogis.com
(82-10-9120-6938/ 070-5096-9886) / 김현미 대리: sienna.kim@maxlogis.com (82-010-9924-2772/ 070-5096-91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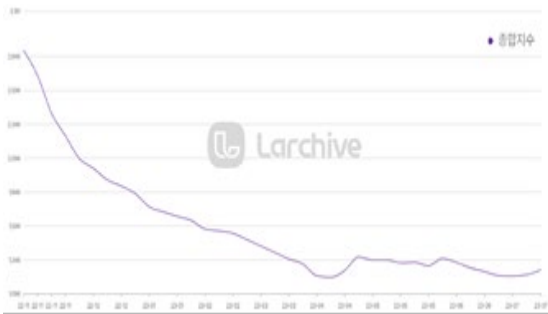
아시아

1) 물류 동향

동북아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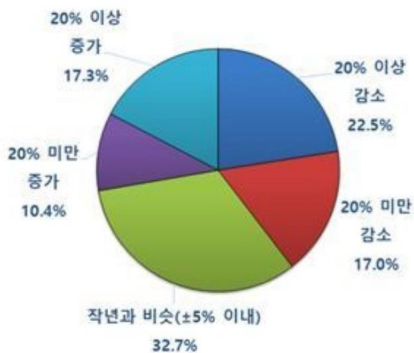
• 해운동향 : 한국 컨테이너선 종합지수 (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), 29WK

✓ 미주 상승 / 유럽 상승 / 남미 보합 / 근해 하락



- 13개의 노선 중 6개 노선은 전주대비 상승 ▲ / 7개 노선은 전주대비 하락 ▼
- (종합)23년 7월 24일 종합지수는 전주대비 3.0% 상승한 1,273p로 집계됨.
- (미주)서안은 전주 대비 11.4% 상승한 1,660 달러를 기록함. 동안도 2,499달러로 전주대비 2.0% 상승함.
- (북유럽/지중해)북유럽 운임은 전주대비 8.9% 상승하여 1,239달러로 집계됨. 지중해는 전주대비 0.5% 소폭하락한 2,063달러로 집계됨.
- (남미)남미동안 2,805달러로 전주대비 2.2% 상승함. 남미서안 2,203달러로 전주대비 1.7% 하락함.
- (근해항로)중국 운임은 73달러로 전주대비 2.7% 하락함. 일본은 전주대비 1.0% 하락한 323달러를 기록함. 동남아행 운임도 전주대비 1.6% 하락한 392달러를 기록함.

• 한국무역협회 올해 수출, 작년보다 감소할 것" 수출기업 10 곳 중 4 곳 응답



- 수출기업 675개사를 대상으로 올 해 수출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9.5%, '작년과 비슷할 것'은 32.7%, '작년보다 증가할 것'은 27.7%로 집계됨
- 품목별로 서비스, 미용·화장품, 자동차, 자동차부품, 의료기기, 반도체 등 6개 품목에서 수출 증가 전망이 우세함

• 한국무역협회 올해 수출, 작년보다 감소할 것” 수출기업 10 곳 중 4 곳 응답

[수출감소 전망기업이 예상한 회복시기]



-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의 80.9%는 수출 회복시점을 '내년 상반기 이후' 로 전망
- 올해 3분기 회복전망은 6.4%, 4분기 회복 전망은 12.7%로 집계됨
- 올 해 들어 악화한 수출 환경 요인으로는 '상대적 경쟁력 약화' (23.4%), ' 금융 비용 증가 및 자금 조달'(23.3%), '마케팅애로' (14.1%), '물류 비용 부담' (8.7%) 등이 뒤를 이음.

• 일본 -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으로 복귀

- 일본 정부는 7월21일 한국을 수출우대 대상국 A그룹(舊 화이트 국가)으로 다시 지정하고, 2019년 여름에 한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 엄격해졌던 모든 조치를 4년 만에 모두 해제했음.

• 일본 - 6월 소비자물가, 3.3% 상승

- 일본 총무성이 지난 2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(CPI, 2020년=100)의 종합지수 (변동폭이 큰 신선식품은 제외)가 105.0으로 전년 같은 달과 대비하여 3.3% P 상승하였음
-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작년 같은 달 대비 상승폭도 2개월 만에 확대되었음.
- 식품 등의 생필품이 전체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음. 신선식품을 포함한 종합지수도 3.3% P 상승함

****동남아 지역****

• 베트남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(VK,AK)서식 전자본으로 변경됨.

- 시행 날짜 : 23년 7월 14일 이후 국내 수입 신고분 (베트남에서 실제 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)
- 변경 사항 : 원산지 증명서상 발급기관의 전자서명, QR코드(서류 진위확인용)

- **호치민시,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규 물류센터 3곳 개발계획.**
 - 깟라이, 꾸찌, 린쭙(항공화물), 2025년까지 1단계 완공 후 2030년까지 확장
 - 3곳의 물류센터는 공항, 항만, 기차역 등 교통허브와 가깝고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성지역으로 운송 및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 보관에 적합
- **대만 항공시장운임 23년 상반기 대비 전체노선기준 지속 운임하락세가 이어져**
 - ICN 노선은 항공사별 운임 포함 될 것으로 전망됨.
- **높은 재고로 인한 수요감소로 대만의 항공화물수요는 감소**
 - 여전히 제품분야별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반면 항공공급은 여행/BIZ 왕래 계속 늘어나 공급량 10%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23년 하반기(3기)에는 코로나 이전 공급대비 약 70%~75% 공급률 예상되고 있음.
- **23년 하반기(3기) 대만발 항공화물 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측**
 - 항공기 공급은 증대되며, 항공운임은 이미 최저가 수준이기에 항공사별 포함 예측되고 있음.
- **타이항공 방콕-델리/뭄바이 항공편 증편**
 - 태국항공공사(THAI)는 승객의 여행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4대의 에어버스 A320 항공기를 인수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방콕-델리 국제선(TG323/324)과 7월 2일부터 방콕-뭄바이 왕복 노선(TG351/352)을 운항 시작.
- **싱가포르 화물 수요**
 - 싱가포르발 상반기 물동량 전년대비 9%가량 줄어들었으며 한국향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됨.
 - 일부 줄어든 인천향 물량으로 인하여 국적사 글로벌 TS화물 유치에 집중하고 있음.
코로나 이후 면세점 물량의 경우 상당량 해상으로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 여행객 증가로 인하여 항공 진행 물량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파악됨.
 - DHL SIN-ICN-LAX B777 화물기 기존 5회 (주 1회 취소)에서 주 6회 운항으로 원복
- **KSP(한국계) Depot 램차방 항구내 창고 증설 및 데포 확장.**
 - KSP Depot은 Depot 서비스 사업을 램차방 항구 2km떨어진 곳에 증설.

- 운영 면적은 2개 데포 및 창고포함 2만평정도이며, 8,000 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데포와 Bonded Warehouse 증축.
- Maxtop TH또한 KSP Depot측과 창고 임대 계획중에 있으며, 항구 근접 창고사용으로 고객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.

2) 경제 동향

동북아 지역

- **한국-신규 수출기업 3천개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(FTA)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**
 -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:
FTA 통상진흥센터 내 상주관세사가 1:1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
- **인천항,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물동량 회복세 두드러져, 전년 동기 대비 6.1% 증가**
 -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 165만TEU 처리, 중고차 수출증가 호재 영향
 - 전년 동기 대비 6.1% 증가한 164만 9,801TEU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보임
 - IPA(인천항만공사)는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물동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중고차 수출 방식의 확대와 이에 따른 중고차 수출용 공컨테이너 수요 증가 등을 언급
- **5조원대 '편의 전쟁'...HMM인수, 승자는 누구?**
 - 매각 공고 약 1주일 만에 SM그룹, 하림, LX, 동원그룹에 이어 글로벌세아까지 참여를 결정하며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전 판이 커지고 있다
 - HMM: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최대주주. 시가총액은 8조5천억원대로 몸집도 큰 코스피 상장사
 - 이번 인수합병 거래 종료 후에도 남은 1조6800억원 규모 영구채 처리를 두고 매각 측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후보가 물망에 오를 전망

동남아 지역

- **베트남 - 외국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**
 - 베트남의 성장은 세계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아 다소 둔화되었지만 다른 국가들 보다 회복세가 강하며, 외국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아시아-5

• 베트남, 상반기 GDP 성장률은 3.72%에 그쳐

- 이는 2011년 이후 코로나시기를 제외하고서 제일 낮은 수치임.

•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약 4.7%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

- IMF(국제통화기금)에서는 올해 베트남의 하반기 수출 반등, 내수경기진작 정책 적용에 힘입어 2023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약 4.7%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.
- 2023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2.4% 감소, 특히 컴퓨터, 전자제품 및 부품, 수산물, 커피는 30% 이상 감소.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4개월 연속 하락 (인플레이션 완화)

<베트남 2023년 상반기 GDP 성장률 및 분야별 성장률>



• 6월 對 태국발 수출 작년대비 -6.4% 감소

- 23년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-5.4% 증가한 141억7000만 달러(-5.4%)를 수입해 전년 동기 대비 수출대비 수입이 3.5% 증가, 63억7000만 달러의 무역적자 발생.
- 6월의 수출 비율은 작년 부분적으로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인 수출비율 위축예상.
- 단, 가치 측면에서 보면 수출 가치 상승하였고, 태국 수출은 여러 타국가보다 나은 것으로 간주됨.

3) 지점업무/지점소식

한국 지점

• 미주 및 중남미

- 미주 전 지역 콘솔 및 BUP 프로그램을 운영 중
- 8월 OZ ICN-JFK BUP 운영 시작
- OZ SKD 이외 OAL SVC (UA/DL/5X/M6 등)에 대한 경쟁력 있는 운임 지원 가능
- 미주 지역 외 주요 캐나다 및 중남미 (MEX/GRU/BOG/SCL 외) 서비스 진행

아시아-6

<BUP 스케줄>

DEST	FLT	ETD/ETA	FRQ	ROUTE	CUT-OFF TIME	실무자
LAX	OZ284/OZ286	2330 / 1840	D123456	DIRECT	작업일 17시	안범준 사원 (070-5069-9441)
	OZ2829	0230 / 2025 -1	D7			
SFO	OZ212	2050 / 1500	DAILY	DIRECT		
ORD	OZ242/OZ244/OZ248	2300 / 0005 +1	DAILY	DIRECT	작업일 17시	조재범 과장 (070-5096-9442) 장희원 사원 (070-5096-9101)
ATL	OZ483/OZ248	2300 / 0510+1	D357	DIRECT		
DFW	OZ242/OZ244	2300 / 0430+1	D1246	DIRECT		
JFK	OZ587	2245 / 0030 +1	D2	DIRECT	작업일 17시	서현주 사원 (070-5096-9342)
	OZ588	1810 / 2105	D5		전일 17시	
	OZ589	2345 / 0130 +1	D7		전일 17시	

메일: usa@maxlogis.com / 네이트온: maxkorea airexp@nate.com / TEL: 02-3144-2289

• 유럽 및 서남아시아 / 중앙아시아

- 유럽 주요 지역(LHR/FRA/VIE/MXP) 콘솔 및 BUP 운영 중
- OZ SKD 이외 주요 OAL을 통한 유럽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이원 구간 서비스 진행 중
- LHR/STN 전자담배에 대한 특가 및 안정적 스페이스 지원 가능

<스케줄>

DEST	FLT	ETD/ETA	FRQ	ROUTE	CUT-OFF TIME	실무자
LHR/STN	OZ793 (FRT)	0230 / 1050 2200 / 0620 + 1	D1 D4	DIRECT	토요일 15시 작업당일 17시	박주상 과장 (070-5096-9385) 박설희 대리 (070-5096-9389)
FRA	OZ793 (FRT)	0230 / 1520	D14	DIRECT	전일 17시	
FRA/VIE	OZ795 (FRT)	2230 / 0610 + 1 (VIE) 2230 / 0940 + 1 (FRA)	D25	DIRECT	작업당일 17시	
	OZ775 (FRT)	2230 / 0610 + 1 (VIE) 2230 / 0940 + 1 (FRA)	D36	DIRECT	작업당일 17시	
MXP/VIE	OZ797 (FRT)	0905 / 1645 (VIE) 0905 / 2020 (MXP)	D1	DIRECT	전일 17시	
	OZ789 (FRT)	2310 / 0650 + 1 (VIE) 2310 / 1050 + 1 (MXP)	D4	DIRECT	작업당일 17시	
IST	OZ551	1025 / 1610	D1356	DIRECT		
ALA	OZ577	1805 / 2140	D12457	DIRECT		
TAS	OZ573	1635 / 2020	D1356	DIRECT		

메일 : europe@maxlogis.com / 네이트온 : max export1@nate.com / TEL : 02-3144-2289

• 아시아 및 중일지역

- 주요 아시아 노선 (HAN/HKG/PVG) 콘솔 및 BUP 운영 중
- HAN /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특가 및 스페이스 지원 가능

아시아-7

- OZ의 안정적인 PVG 화물기 서비스 진행으로 정시성 및 운임 경쟁력 확보
- OZ 직항 및 주요 OAL (VN/TG/MH/YP/KJ 외)에 기반한 인프라 아시아 지역 서비스 지원

DEST	FLT	ETD/ETA	FRQ	ROUTE	CUT-OFF TIME	실무자
PVG	OZ987	0050 / 0205 +1	D234567	Direct	작업당일 18시	전나연 과장 (070-5096-9366)
HAN	OZ933	2200 / 0045 +1	D134	Direct	작업당일 17시	강준환 사원 (070-5096-9869)
	OZ389/OZ387	2355 / 0250 +1	D23567	Direct	작업당일 17시	
HKG	OZ967	1210 / 1440	D2457	Direct	전일 19시	김정은 사원 (070-5096-9384)
	OZ969	2345 / 0215 +1	D24	Direct	작업당일 18시	
	OZ951	2345 / 0655	D256	Direct	작업당일 18시	

DEST	FLT	ETD/ETA	FRQ	ROUTE	실무자
NRT	OZ1145	0810 / 0950	DAILY	DIRECT	손지민 사원 (070-5096-9121)
	OZ1165	1740 / 1920	DAILY		
	OZ192	1715 / 1905	D3467		
TPE	OZ711	1000 / 1130	DAILY	DIRECT	
	OZ713	1420 / 1550			

메일: asia@maxlogis.com / 네이트온: maxkorea airexp@nate.com / TEL: 02-3144-2289

- 7월 10일부로 항공수출부, 수입부에 각각 곽지연씨, 한상민씨 입사.

BKK 지점

- 7월 3일부로 태국지점 Ms. Puntira Hlaosri (Supervisor)가 해상수입 담당자로 입사.
기존 MOL에서의 풍부한 물류 CS 경력으로 해상수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.

1) 물류 동향

- **아시아나, 청두 TFU**
 - 인천 공항 항편 개시, 주23567, 5편 운영 OZ324 A330/320
- **충칭지역 전자상거래 화물 증가**
- **CMA CGM 아시아 → 남아프리카 항로 PSS 도입**
 - CMA CGM은 8월 21일 부터 아시아 → 남아프리카항로에 대해 성수기 부가료(PSS)를 도입
 - 부과금액 : TEU 당 USD300 / 일반 드라이, 장척 화물(OCG), 브레이크 벌크에 적용
 - 적용지역 : 홍콩, 중국, 대만, 동북아에서 남아프리카항로에 적용
- **보안국, 선전완 출입국관리소 통관시간 연장 협의 중**
 - 홍콩 보안국과 중국 선전완 출입국관리소가 통관시간 (06:30~24:00) 연장 협의중
 - 現선전완 일일 이용자수 6만명, 국경이동 차량 5900대, 국경이동 화물차 4100대 상황

2) 경제 동향

- **중국의 외환수급 구조 불안 가능성 평가**
 -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위안화 약세 폭도 커지면서 위안화 외환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
 - 환율이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6월 말 8개월래 최대 약세(6.29일 7.25위안)를 기록. 이후에도 여전히 7.1위안을 상회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와 대조
- **중국 2분기 성장률 상승(6.3%) 불구 경기 하방압력 증대**
 - 중국의 금년 2분기 GDP 성장률(전년동기비)은 소비 및 생산 회복에 힘입어 6.3%로 전분기(4.5%) 대비 상승했으나 예상치(7.1%)를 하회
- **중국 금융당국의 역외자금조달 상한 상향 조정 배경**
 -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역외자금조달(외자도입) 거시건전성 조정계수(跨境融资宏观审慎调整参数)를 종전 1.25에서 1.5로상향 조정
 -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자도입의 거시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,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원천을 증대시키며, 자산부채 구조의 최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

중국-2

- 中 전력난 재연 가능성과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 전망

- 중국 경기회복, 산업고도화로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급 폭염까지 겹쳐 여름철 전력 성수기 지역에서 일부 전력난 발생예상

- 존 리 홍콩행정장관 아세안 국가 방문

- 존 리 홍콩행정장관은 7월 23일부터 7일간 대표단을 이끌고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홍콩과 아세안 3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
- 리 행정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역, 투자, 금융, 혁신 및 기술, 문화 관광 및 학술연구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협력관계를 체결하며 비즈니스 기회 및 각 국가 간의 관계를 넓히는 중

3) 지점 소식

HKG 지점

- 윤경아(Margaret Yun) 사원 8월 1일부로 회계부서에서 C/S 부서로 근무 부서 변경

유럽

1) 물류동향

- **아시아나 항공, 베니스 - 인천 노선 여름 성수기 기간 여객기 부정기 차터 운영**
 - 기간 : 2023.7.18 ~ 8.29, 매주 수요일 출발, 기종 B777 여객기
- **2023년 8월 중순 ~ 9월 중순 이탈리아 본격적인 여름휴가 돌입**
(수출업자, 수입업자, 트럭킹 등 휴무일 사전 점검 필요)

<2023년 8월 이탈리아 - 인천노선 국적사 스케줄 (항공)>

항공사	구분	노선	mon	Tue	Wed	Thu	Fri	Sat	Sun	기종	비고
KE	화물기	MXP/ICN			KE9576 1905/1325+1		KE9576 1905/1325+1		KE9576 1905/1325+1	777-F	화물기 주간 5회
			KE514 2150/1610+1					KE8514 2355/1835+1 (747-8F)	777-F		
	여객기	MXP/ICN	KE928 2040/1455+1		KE928 2150/1605+1		KE928 2150/1605+1		KE928 2150/1605+1	B777-300	
FCO/ICN		KE932 2125/1530+1	KE932 2125/1530+1	KE932 2125/1530+1	KE932 2125/1530+1	KE932 2125/1530+1	KE932 2125/1530+1	KE932 2125/1530+1	B777-300		
OZ	화물기	MXP/ICN	OZ798 2220/1635+1				OZ790 1225/0640+1			747-4F	화물기 주간 2회
	여객기	FCO/ICN		OZ562 1940/1355+1		OZ562 1940/1355+1		OZ562 1940/1355+1	OZ562 1940/1355+1	A350-900	
		VCE/ICN				OZ5323 1630/0940+1				B777-200	7/19~8/29 부정기 차터

[주] KE의 경우 8월에는 월요일 화물기는 수요일에 따라서 비운항 가능성 있음 (KE514/D1)

- **에어프리미아, 프랑크푸르트-인천 여객기 6월 말부터 주4회 취항**
 - 다만 여객 수요에 따라 겨울에는 스페인으로 노선 변경 가능성이 높음.
- **선사들 -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아올 때 통항료가 있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, 별도의 통항료가 없는 남아공 희망봉을 우회하는 추세**
 - 해운 업계 관계자는 "수에즈 운하청(SCA)은 지난 1년간 통항료를 꾸준히 인상해왔다" 라며 "수에즈 운하 통항료가 40억원 수준인데, 우회할 경우 추가되는 연료비를 감안하더라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"라고 말했다

1) 물류동향

- 운항 속도를 줄이는 것 또한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
- 영국의 조선·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 등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의 2023년 상반기 연평균 선속은 13.85 노트(시속 25.6km)로, 2021년 대비 4.4% 감소했음
- 컨테이너선 속도를 늦추면 화물을 옮길 수 있는 총선복량(적재능력)이 줄어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음
- 다만, 하반기에도 수급 불균형에 따른 운임 하락은 이어질 전망
- 해양진흥공단은 올해 물동량 수요 예상 증가율은 0.3%이지만, 공급(운송 능력)은 6.8% 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음
-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"SCFI 지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"라고 언급
- 이어 "그러나 대형 선사들이 공급을 늘리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비용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사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"이라고 말했음

2) 경제동향

• 이탈리아 이상기온 현상 지속중

- 이탈리아 북부 (롬바르디아 주, 밀라노 소재) 지역에 폭풍우 및 우박 발생 (2명 사망)
- 반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기록적이 폭염 및 산불 발생 (시칠리아의 경우 섭씨 47도 기록)

• '23년 7월 이탈리아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(PMI)가 예상보다 더 떨어져서 43.6 기록

- 3개월 선행지수인 점 을 감안하며, 이탈리아 제조업 경기가 3분기에도 위축 지속 전망

• 월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 0.1% ↑ ..."2020년 12월래 최저"

-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2023년 6월 생산자 물가지수(PPI)는 전년 동월 대비 0.1% 올랐다고 마켓워치와 RTT 뉴스 등이 20일 보도했음
- 매체는 독일 연방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관련 지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PPI 상승률이 2020년 12월 이래 2년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음
- 시장 예상 중앙치는 포함인데 실제로는 이를 0.1% 포인트 웃돌았음
- 5월 PPI는 1.0% 상승했음